

온라인쇼핑 매출 급증 음식 매출 1조 넘어

지난해 11월 전화를 통한 배달을 제외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PC 등을 통한 음식서비스업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 매출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처음으로 13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국의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배송서비스 발달과 가정 간편식 선호 등의 영향으로 배달 주문을 비롯한 음식서비스가 1년 전보다 100.3% 증가한 1조2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음식서비스업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월간 1조원을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2조7,57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2%(2조1,462억 원) 증가했다. 월간 거래액이 12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최대였던 지난해 10월(11조8,120억 원)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통계청 관계자는 "온라인쇼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데 더해 재작년에는 9-10월에 열렸던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지난해에는 11월 1-22일에 열리면서 거래액 증가세가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121조9,970억 원으로, 120조 원을 넘어섰다. 2018년 같은 기간 누적 거래액은 103조 원이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 9조6,814억원은 전체 소매판매액 41조9,587억원에서 23.1%를 차지한다. 한 달에 상품 소비에 100만 원을 썼는데 그중 23만 원가량은 온라인을 통했다는 의미다. 2018년 연간 비중(18.8%)에 비춰보면 급격한 상승세다.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8.1% 증가한 8조4,063억 원으로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대비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65.9%로 1년 전보다 4.0%포인트 증가했다.

서울 꼬마빌딩 가격 급등 2030 부자들 빌딩 매수 나선 탓

불경기에도 지난 2년 새 서울의 꼬마빌딩 가격이 40%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해 상가 공실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빌딩 가격이 9%가량 상승했다.

풍부한 유동자금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2030' 젊은 부자들이 빌딩 매수에 뛰어들며 수요가 많아진 점도 빌딩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토지·건물 실거래가 정보업체 밸류맵에 의뢰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2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200억 원 이하 일반업무상업시설의 평균 매매 거래가격은 대지면적 3.3㎡당 5,927만 원으로 전년 5,430만 원보다 9.2% 상승했다.

2년 전인 2017년 매매가격 3.3㎡당 4,267만 원보다는 38.9% 뛰었다. 2016년 3,724만 원보다는 59.2% 급등했다.

거래 건수는 2016년 4,577건에서 2017년 3,788건, 지난해 2,918건, 올해 2,536건으로 감소세이다. 그럼에도 실거래된 매물 가격은 오른 것이다.

이는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인 것과 궤를 달리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국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1.5%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1분기 이후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높은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강남, 홍대 등 서울 주요 빌딩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봤다. 제2벤처붐으로 회사 매각에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 성공한 사업가 등 젊은층이 빌딩 매수에 가세한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빌딩중개업체 빌사남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 강남구 내 500억 원 이하 소유권 이전 완료 상업업무용건물을 거래한 사람 중 30대 이하가 전체의 30%에 달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서울 빌딩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데다 2015년부터 기준금리가 1%대에 접어들며 빌딩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은퇴한 '베이비부머'와 함께 30대 매수자들도 많아지고 지방에서도 서울 건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내년에는 서울 빌딩 가격만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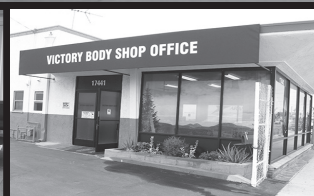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